

이규보(李奎報)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의 지리지적(地理誌的) 성격 고찰

유정열*

목 차

- | | |
|---------------------|------------|
| 1. 들어가는 글 | 4. 마치는 글 |
| 2. 「남행월일기」의 장르적 성격 | 참고문헌 |
| 3. 「남행월일기」의 지리지적 성격 | <Abstract> |

국문초록

본고는 이규보(李奎報)의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를 지리지적(地理誌的) 성격을 지닌 작품으로 보고 그 면모를 고찰했다. 「남행월일기」는 기본적으로 산수유기(山水遊記)에 속하는 작품이다. 다만 산수미의 형상화보다 유람지들의 정보를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는 점에서 ‘지리지적 성격을 지닌 산수유기’로 볼 수 있다. 산수유기가 지리지적 성격을 지니는 것은 장르 경향 중 하나라 할 수 있으며, 「남행월일기」는 한국 산수유기의 역사에서 이 경향을 선도한 작품이다. 한편 산수유기와 지리지의 상위 장르인 ‘기’(記)와 ‘지’(誌)는 ‘사실 기록’이라는 기본 성격을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넘나들며 혼용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보면 「남행월일기」가 지리지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남행월일기」의 지리지적 성격은 먼저 그 수록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남행월일기」에는 이규보가 유람한 지역들의 지세, 식생, 풍속, 종교 등과 같은 정보들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 정보들은 해당 지역들의 자연지리와 인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 zoroaster-j@hanmail.net

문지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가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록 정보들이 후대 지리지에 수용된 실태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도 「남행월일기」의 지리지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행월일기」 수록 정보들은 조선 초기에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수용된 이래로 조선 시대 거의 전시기 동안 전국 단위의 것은 물론 지역 단위 것에 이르기까지 지리지에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 이는 「남행월일기」가 애초에 지리지적 성격을 지닌 작품이었기에 가능한 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 의거해 「남행월일기」의 위상을 지리지적 측면에서도 정립해 볼 수 있었다. 「남행월일기」 수록 정보들은 거의 전라북도에 대한 것이며, 그 이전의 저술 중 전라북도에 대한 정보들을 집중적으로 수록한 것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남행월일기」는 전북지(全北誌)의 성격을 지닌 가장 이른 시기의 저술로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남행월일기」, 이규보, 지리 정보, 지리지적 성격을 지닌 산수유기

1. 들어가는 글

고려의 문호 이규보(李奎報, 1168-1241)는 1199년 전주목(全州牧) 사록겸장서기(司錄兼掌書記)로 임명되어 그해 9월에 부임한 후 이듬해인 1200년 12월에 파직될 때까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전주 지역에 머무른 바 있다.¹⁾ 그는 이 시기에 공무 등으로 인해 지금의 전라북도와 그 인접 지역들을 두루 방문했으며 그 과정 중 견문한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리고 그 기록을 정리해 저술한 것이 바로 본고의 연구 대상인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이다.

이규보는 「남행월일기」에 자신이 견문한 것을 생생하고도 다채롭게 기록해 놓았다. 이러한 가치로 인해 「남행월일기」는 일찍부터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 연구는 문학 방면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에서는 「남행월일기」를 기행문학 작품으로 규정하고 그 특징들을 밝히고자 했다. 이 연구들을 통해 「남행월일기」가 예술적 표현과 시적 정서 등이 담긴 문학 작품인 동시에 여러 지역에 대한 다양한 견문이 담긴 지식의 보고(寶庫)임이 밝혀졌다.²⁾

1) 김용선, 『이규보 연보』, 일조각, 2013, 78-81쪽 참조.

2) 대표적인 연구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최승범, 『韓國隨筆文學研究』, 정음사, 1980, 167-168쪽; 경일남, 「<南行月日記>의 隨筆的 特性」, 『한국언어문학』 29, 한국언어문학

한편 사학 방면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은 「남행월일기」 수록 건문의 사료적 가치에 주목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대부터 이규보의 시대까지 전라북도의 문화, 역사, 종교 등의 특징들을 밝히고자 했다.³⁾ 비래방장(飛來方丈)에 대한 것을 비롯한 불교 관련 건문을 분석함으로써 고대사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려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⁴⁾

이상에서 보듯이 「남행월일기」에 대한 연구는 문학과 사학을 막론하고 그 무엇보다 수록 건문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평가 아래 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관점과 성과를 수용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건문을 일종의 정보로 보는 관점 아래 「남행월일기」를 지리지적(地理誌的) 성격을 지닌 작품으로 규정하고 그 면모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작품의 기본 성격을 새롭게 이해하고 작품의 위상 또한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단 작품의 장르적 성격부터 다시 고찰함으로써 작품 이해의 단서를 모색할 것이다. 이어서 작품에 어떠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는지 그 정보들이 지리지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지리지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한편 논의의 과정에서 작품의 주요 배경이 전라북도 지역들이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것이다. 본고의 논의가 한국 기행문학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는 동시에 전북학의 역사를 밝히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남행월일기」의 장르적 성격

「남행월일기」는 공무 수행 중 유람을 즐기는 저자 이규보의 행보를 따라 전개되고 있다. 「남행월일기」가 그간의 연구에서 대체로 기행문학 작품으로 이해되어 온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명칭으로는 기행수필, 기행문, 유람일기, 산수유기(山水遊記)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되어 온바 이것이 다소

회, 1991; 남현희, 「고려후기 산수유기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33-41쪽; 원주용, 「이규보의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5-24쪽.
 3) 대표적인 연구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법중, 「이규보의 <南行月日記>에 나타난 고대사 사료 검토: 普德, 元曉, 眞表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사인물연구』 13, 한국인물사연구소, 2010; 김창현, 「문집의 遊歷 기록을 통해 본 고려후기 지역사회의 양상: 이규보의 전주권역 遊歷 기록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52, 고려사학회, 2013.
 4) 조법중, 위의 논문, 280-298쪽.

혼란을 줄 수 있다. 필자는 작품의 성격과 작품이 ‘기’(記)를 표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문 장르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산수유기’로 명칭을 통일시키는 것이 좋다고 본다.⁵⁾

산수유기는 말 그대로 산수유람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산수미를 형상화하는 데 치중하기 마련이다. 『남행월일기』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벌목(伐木) 감독을 위해 1200년 정월에 부안 변산(邊山)을 방문했을 때 아름다운 산수에 시심(詩心)이 촉발되는 과정을 서술한 다음 부분을 들 수 있다.

푸른 물결과 파란 멧부리가 숨었다 나타났다 하고, 흐린 날과 갠 날, 아침과 저녁의 풍경이 각기 다르며, 구름과 노을이 붉으락푸르락 그 위에 등실 떠 있어, 아스라이 만첩(萬疊)의 화병(畫屏)을 두른 듯 하였다. 눈을 들어 그 경치를 바라보노라니 시를 잘하는 두세 명과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가면서 함께 읊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다. 그러나 온갖 풍경이 낯을 건드리매 정서(情緒)가 절로 흘러넘치게 하여 시를 지을 생각을 하지 않는데도 나도 모르게 시가 자연히 지어졌다.⁶⁾

그런데 서론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남행월일기』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여러 지역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는 사실, 즉 ‘정보성’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남행월일기』는 작품 대부분을 유람 중 견문한 자연지리 정보와 인문지리 정보를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작품이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은 “내가 일찍이 사방을 두루 다녀 내 말의 발굽이 닿는 곳마다 만일 이문(異聞)이나 이견(異見)이 있으면 시(詩)로써 거두고 문(文)으로써 채집하여 후일에 볼 것으로 삼고자 했다”⁷⁾라는 첫 문장을 통해서도 짐작이 가능하다.

5) 산수유기가 거의 하위 장르 중 하나인 점은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2008, 46-47쪽 참조. 한편 산수유기는 ‘유기’(遊記)라 칭하기도 한다.

6) “其或蒼波翠巘, 隱見出沒, 陰晴昏旦, 每各異狀, 雲霞綵翠, 浮動乎其上, 縹緲如萬疊畫屏. 舉目眺賞, 恨不與二三子之能詩者齊轡而同吟也. 然萬景觸惱, 使人情張王, 初不思爲詩, 不覺率然自作也.”(李奎報, 『南行月日記』, 『東國李相國集』全集 卷23, 한국문집총간 1, 530쪽) 이하 이규보 시문의 인용 쪽수는 모두 이 책의 것이다. 한편 본고에서 제시하는 이규보 시문의 번역은 『국역 동국이상국집』(민족문화추진회 역, 1981)의 것을 가져오되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

7) “予嘗欲遊踐四方, 凡吾馬足之所到, 若有異聞異見, 則詩以拾文以採, 以爲後日之觀.”(李

사실 산수유기라면 견문을 수록하고 있기 마련이다. 다만 「남행월일기」의 경우 그 수준이 보통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 또한 한국 산수유기의 역사에서 면면히 존재해 왔다. 예컨대 「남행월일기」 이후의 작품으로는 먼저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의 「유천왕봉기」(遊天王峯記)를 들 수 있는데, 이 작품은 전편이 거의 지리 정보로 채워져 있다. 「유천왕봉기」 이후로는 임훈(林薰, 1500-1584)의 「등덕유산향적봉기」(登德裕山香積峯記), 신익성(申翊聖, 1588-1644)의 「유금강내외산제기」(遊金剛內外山諸記), 홍백창(洪百昌, 1702-1742)의 『동유기실』(東遊記實) 등에서 동일한 면모가 나타난다.⁸⁾ 특히 조선 후기에 이르러 금강산 산수유기를 중심으로 이러한 유의 작품들이 제법 창작되었다.

이 일련의 작품들은 일정한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해 놓은 지리지(地理誌)와 유사한 면모를 띠고 있으며 이에 의거해 ‘지리지적 성격을 지닌 산수유기’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산수유기가 지리지적 성격을 지니는 것은 산수유기 장르의 경향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남행월일기」는 한국 산수유기의 역사에서 이 경향을 선도한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산수유기 중에는 나름의 체계를 갖춰 정보를 제시한 작품 또한 제법 존재한다. 단순하긴 하되 남효온의 「유천왕봉기」에서 지리산 원근의 산에 대한 정보를 방위별로 제시한 것이 한 예이다.⁹⁾ 다만 「남행월일기」의 경우 이러한 체계성까지 지니고 있지는 않다.

한편 이 경향과 관련해 산수유기의 상위 장르가 ‘기’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행월일기」 또한 이규보의 문집인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중 ‘기’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의론(議論) 등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기’는 “사실을 기록하는 글이다”¹⁰⁾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본래 사실 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장르이다. 그런데 지리지 등의 ‘지’(誌) 또한 “사실을 기록하는 저술이다”¹¹⁾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장르이다. 이렇듯

奎報, 「南行月日記」, 『東國李相國集』全集 卷23, 529쪽)

8) 『동유기실』의 이러한 면모에 대해서는 강혜규, 「농재 홍백창의 『동유기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41-175쪽 참조.

9) 해당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山之東北則慶尙道, 在尙州曰甲長, 金山曰直旨, 星州曰伽耶, 玄風曰毗瑟, 大丘曰公山, 善山曰金烏, 艸溪曰彌勒, 宜寧曰閣岫, 靈山曰靈鷲, 昌原曰黃山, 梁山曰元寂, 金海曰神魚, 泗川曰臥龍, 河東曰金龍, 南海曰錦山, 錦山臥龍之間, 有山遠在海表, 曰巨濟. 山之西南則全羅道, 在興陽曰八巔, 其西曰珍島, 康津曰大屯, 海南曰達磨, 靈巖曰日出, 光陽曰白雲, 順天曰曹溪, 光州曰無等, 扶安曰邊山, 井邑曰內藏, 全州曰母岳, 高山曰花巖, 長水曰德裕. 山之西北則忠清道, 在公州曰鷄龍, 報恩曰俗離.”(南孝溫, 「遊天王峯記」, 『秋江集』卷4, 한국문집총간 16, 86-87쪽)

10) “紀事之文.”(徐師曾, 『文體明辨序說』,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2, 145쪽)

11) “記事之作.”(같은 책, 146쪽)

‘기’는 ‘사실 기록’을 기본 성격으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지’와 장르적으로 깊은 친연성을 지니며, 이로 인해 ‘기’와 ‘지’는 서로 넘나들며 장르적으로 혼용되는 양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동국이상국집』의 ‘기’ 부분에는 「소금각배지」(素琴刻背志)와 「계양망해지」(桂陽望海志)처럼 제목에 ‘지’가 들어간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계양망해지」는 산수유기로 보아도 무방한 작품이다. 한편 후대이긴 하지만 조선 시대에는 ‘지’를 표방하되 실제로는 ‘기’ 형식을 활용한 지리지들이 출현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 묘향산(妙香山) 산지(山誌)인 추봉(秋鵬, 1651-1706)의 『묘향산지』(妙香山誌)와 태율(兌律, 1695-?)의 『향산지』(香山誌)가 각기 산수유기와 산수기(山水記)를 기본 형식으로 활용한 것을 들 수 있다.¹²⁾ 이처럼 그 기본적인 성격을 공유하며 ‘기’와 ‘지’가 서로 혼용되기도 한 사실은 「남행월일기」 같은 산수유기가 지리지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임을 알려준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남행월일기」의 지리지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남행월일기」의 지리지적 성격

1) 다양한 정보의 수록

「남행월일기」 수록 정보들은 이규보의 여정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작품의 지리지적 성격을 효과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수록 정보들을 추출하여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남행월일기」를 통해 보면 이규보는 전주에 머무르며 주로 지금의 전라북도에 속한 지역을 방방곡곡 다녔다. 작품에서 언급된 지역만 17곳에 이른다. 그중 주목할 만한 정보가 제시된 곳을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규보 당시의 지명과 지금의 지명이 다를 경우 원활한 이해를 위해 지금 지명을 표제어로 삼는다.

12) 유정열, 「묘향산(妙香山) 산지(山誌)의 특성과 의의」, 『한국학논집』 8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2, 37-67쪽 참조.

표 1. 「남행월일기」 수록 정보

지역	정보
전주	<p>(1) 전주는 완산(完山)이라고도 하는데 옛날 백제국(百濟國)이다. (夫全州者, 或稱完山, 古百濟國也.)</p> <p>(2) 인물이 번성하고 가옥이 준비하여 고국풍(故國風)이 있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촌스럽지 않으며 아전들은 모두 점잖은 사인(士人)과 같아 행동거지의 신중함이 볼 만했다. (人物繁浩, 屋相櫛比, 有故國之風, 故其民不樵朴, 吏皆若衣冠士人, 進止詳審可觀.)</p> <p>(3) 중자산(中子山)이라는 산이 제일 웅장하니 고을의 웅진(雄鎭)이다. 완산이라는 것은 그저 나지막한 봉우리일 뿐인데 한 고을이 이것을 명칭으로 삼게 된 것은 이상하다. (有中子山者, 最巍鬱, 州之雄鎭也. 其所謂完山者, 特一短峯耳. 異哉, 一州之以此得號也.)</p> <p>(4) 읍치(邑治)에서 1천 보 정도 떨어진 곳에 경복사(景福寺)가 있는데 절에는 비래방장(飛來方丈)이 있다. (...) 비래방장이란 것은 옛날에 보덕대사(普德大士)가 반룡산(盤龍山)에서 날려서 옮겨온 당(堂)이다. (...) (距州理一千步, 有景福寺. 寺有飛來方丈. (...) 所謂飛來方丈者, 昔普德大士自盤龍山飛來之堂也. (...))</p>
진안	<p>(5) 마령(馬靈)과 진안(鎭安)은 산골짜기의 옛 고을이다. (馬靈, 鎭安, 山谷間古縣也.)</p> <p>(6) 그 백성들이 질박하여 얼굴은 원숭이 같고, 그릇의 음식은 비린내가 나는 것이 오랑캐의 풍속이 있으며, 꾸깃으면 놀란 사슴처럼 달아날 듯했다. (其民質野, 面如獼猴, 杯盤飲食腥膻, 有蠻貊風, 有所訶詰, 則狀若駭鹿然, 似將奔遁也.)</p>
완주	<p>(7) 운제(雲梯)에서 고산(高山)에 이르기까지는 험한 봉우리와 높은 고개가 만 길이나 우뚝 솟아 있는데 길이 몹시 좁아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다. (自雲梯至高山, 危峯絕巖, 辟立萬仞, 路極窄, 下馬而後行.)</p>
익산	<p>(8) 이튿날 금마군(金馬郡)으로 가며 ‘지석’(支石: 고인돌)이란 것을 찾아가 보았다. 지석은 민간에서 옛날 성인(聖人)이 받쳐 놓은 것이라 전하는데 과연 기적(奇迹)으로 특이한 점이 있었다. (明日將向金馬郡, 求所謂支石者觀之. 支石者, 俗傳古聖人所支, 果有奇迹之異常者.)</p>
부안 변산	<p>(9) 변산이란 곳은 나라의 재목창(材木倉)이다. 궁실(宮室)을 수리하고 영건하느라 해마다 재목을 베어내지만 아름드리에 하늘까지 솟은 나무가 항상 떨어지지 않는다. (邊山者, 國之材府, 修營宮室, 靡歲不採, 然蔽牛之大, 干霄之幹, 常不竭矣.)</p> <p>(10) 처음 변산에 들어가니, 층층의 봉우리와 겹겹의 멧부리가 솟았다 엮였다 구부러다 폼다 하여, 그 머리나 꼬리의 농인 곳과 발과 팔이 끝난 곳이 도대체 몇 리인지를 알 수 없었다. 옆으로는 큰 바다가 굽어보이고 바다 가운데는 군산도(群山島), 위도(狹島), 구도(鳩島)가 있는데 모두 조석으로 이를 수 있었다. 해인(海人)들이 “순풍을 만나 촌살같이 가면 중국을 가기가 또한 멀지 않다”라고 했다. (初入邊山, 層峯複岫, 昂伏屈展, 其首尾所措, 跟肘所極, 不知幾許里也. 旁俯大海, 海中有群山島, 狹島, 鳩島, 皆朝夕所可至. 海人云得便風直若激箭, 則其去中國, 亦不遠也.)</p> <p>(11) 산중에는 밤이 많은데 고장 사람들이 해마다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얼마쯤 가노라니 수백 보 가량 아름다운 대나무가 마치 삼대처럼 뿔뿔이 서 있는데 전부 울타리로 막아 놓았다. (山中尤多栗, 一方之人, 歲相資以爲食焉. 行若干里, 有美箭植直如麻, 僅數百步, 皆以樊籬障之.)</p> <p>(12) 변산 소래사(蘇來寺)에 갔는데 벽 위에 고(故) 자현 거사(資玄居士)의 시가 걸려 있었다. (遂往邊山蘇來寺, 壁上有故資玄居士詩.)</p> <p>(13) 원효방(元曉房)에 이르렀다. 수십 층 높이의 나무 사다리가 있어 발을 후들후들 떨며 간 끝에 도착했는데, 프락의 계단과 창문이 수풀 끝에 솟아 있었다. (...) 원효방은 고작 8척쯤 된다. (...) 방 중간을 막아 내실(內室)과 외실(外室)을 만들어 놓았다. 내실에는 불상(佛像)과 원효의 초상이 있고 외실에는 병(瓶) 한 개, 신 한 켤레, 다기(茶器), 경계(經機)만 있다. (至元曉房, 有木梯高數十級, 疊足凌兢而行, 乃得至焉. 庭階窓戶, 上出林杪. (...) 元曉房</p>

지역	정보
	<p>才八尺. (….) 障其中爲內外室, 內室有佛像元曉眞容, 外則一瓶雙屨茶瓷經机而已.)</p> <p>(14) 곁에 한 암자가 있는데, 민간의 말에 의하면 ‘사포성인’(蛇包聖人)이란 사람이 옛날에 머물던 곳이라 한다. 원효가 와서 거주하자 사포 또한 와서 모시고 있었다. 그는 차를 끓여 원효에게 올리려 했으나 샘물이 없어 근심했다. 그러던 중 이 물이 바위틈에서 돌연 솟아났는데 맛이 젓처럼 몹시 달아서 항상 차를 끓였다 한다. (傍有一庵, 俗語所云蛇包聖人所昔住也. 以元曉來居故, 蛇包亦來侍, 欲試茶進曉公, 病無泉水, 此水從巖罅忽湧出, 味極甘如乳, 因嘗點茶也.)</p> <p>(15) 또 ‘불사의방장’(不思議方丈)이란 것이 어디 있는지 물어서 구경했는데, 그 높고 험하기가 원효방의 만 배는 되었고 1백 척 높이의 나무사다리가 절벽에 곧게 걸려 있었다. 3면이 전부 험한 골짜기라, 몸을 돌려 계단을 하나씩 딛고 내려와서야 방장에 도착했다. 한번만 헛다녀도 다시 어찌해 볼 수가 없다. (….) 그 방장은 쇠줄로 바위에 박아 놓았기 때문에 기울어지지 않는데, 민간에서 바다의 용이 그렇게 한 것이라 전한다. (又問所謂不思議方丈者求觀之, 其高險萬倍於曉公方丈, 有木梯高可百尺, 直倚絕壁, 三面皆不測之壑, 回身計級而下, 乃得至於方丈, 一失足則更無可奈何矣. (….) 其方丈, 以鐵索釘巖故不欹, 俗傳海龍所爲也.)</p> <p>(16) 마침내 들어가서 부싯들을 쳐서 불을 만들어 향(香)을 피우고 율사(律師)의 초상에 예배하였다. 율사는 이름이 진표(眞表)이고 벽골군(碧骨郡) 대정촌(大井村) 사람이다. 12살에 현계산(賢戒山) 불사의암(不思議巖)에 와서 거주했는데 현계산은 바로 이 산이다. (….) 삼칠일에 이르러 불사의암 앞 나무 위에 자씨(慈氏: 미륵보살)와 지장(地藏: 지장보살)이 현신(現身)하여 계(戒)를 주었다. (滲入焉, 敲石取火, 焚香禮律師眞容. 律師者, 名眞表, 碧骨郡大井村人也. 年十二, 來棲賢戒山不思議巖. 賢戒山者, 卽此山是已. (….) 至三七日, 巖前樹上, 有慈氏地藏現身授戒.)</p> <p>(17) 돌아오려 할 때 부령현 수령이 어느 산꼭대기에 술자리를 마련해 놓고는 “이곳이 망해대(望海臺)입니다. (….)”라고 했다. (將還, 縣宰置酒一巔曰: “此望海臺也. (….)”)</p>
금산	<p>(18) 먼저 진례현(進禮縣)으로 향하였다. 산은 몹시 높고 들어갈수록 점차 깊어져 이방(異邦)의 별경(別境)을 밝는 것만 같았다. (先指進禮縣, 山極高, 入之漸幽奧, 如蹈異邦別境.)</p>
남원	<p>(19) 남원은 옛날 대방국(帶方國)이다. (南原, 古帶方國也.)</p> <p>(20) 객관(客館) 뒤편에 죽루(竹樓)가 있는데 크고 널찍한 것이 사랑스러워 하룻밤 묵고 떠났다. (客館後有竹樓, 閑敞可愛, 一宿而去.)</p>
고창	<p>(21) 장사(長沙)로 향했다. 바위가 하나 있고 바위에는 미륵상(彌勒像)이 우뚝 서있는데 바위에 새긴 것이었다. 그 미륵상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는 또 속이 텅 빈 거대한 바위가 있었다. 그 안을 통해 들어가니 땅이 점차 넓어지고 위가 돌연 환하게 트이며 집이 웅장하고 화려하며 불상이 준엄하게 빛났는데 도솔사(兜率寺)였다. 날이 저물기에 말을 채찍질해 달려서 선운사(禪雲寺)에 들어가 잤다. (將指長沙. 有一巖, 巖有彌勒像, 挺然突出, 是因巖鑿出者. 距其像若干步, 又有巨巖朽然中虛者. 自其中入之, 地漸寬敞, 上忽通豁, 屋宇宏麗, 像設嚴煥, 是兜率寺也. 日侵暮, 促鞭絕馳, 入禪雲寺宿焉.)</p>

이상의 정보들은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에 대한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자연지리 정보의 경우 산수, 지세, 식생 등에 대한 것들을, 인문지리 정보의 경우 연혁, 풍속, 종교[사암(寺庵)과 승려], 고적 등에 대한 것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 분류에 의거해 정보들을 다시 정리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두 가지 이상의 성격이 공존할 경우 조금 더 우세한 쪽 혹은 근간이 될 만한 쪽으로

분류했다.

표 2. 「남행월일기」 수록 정보 분류

자연지리	산수	(3), (17)
	지세	(5), (7), (10), (18)
	식생	(9), (11)
인문지리	연혁	(1), (19)
	풍속	(2), (6)
	종교	(4), (12), (13), (14), (15), (16), (21)
	고적	(8), (20)

자연지리와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의 진안, 완주 북쪽 지역, 금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5), (7), (18)이 주목할 만하다. 이 부분들은, “산골짜기의 옛 고을”, “힘한 봉우리와 높은 고개가 만 길이나 우뚝 솟아 있는데”, “산은 몹시 높고 들어갈수록 점차 깊어져”와 같은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로 해당 지역들이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지역들은 산이 많은 곳으로 운장산(雲長山)과 대둔산(大屯山) 등 금남정맥(錦南正脈)과 그 줄기에 속한 산이 이어지고 분포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부분들은 전북 북동쪽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연지리 정보를 가장 풍부하게 수록한 것은 부안의 변산 관련 부분들이다. 별목 감독을 위해 처음 방문한 변산을 이규보는 (9)에서 국가의 재목창으로 소개하는데 이는 변산이 식생이 풍부한 곳임을 알려준다. (11)에서는 식생과 관련해 이곳에 밤이 많이 자생하여 백성들이 그것을 식량으로 삼기도 한다는 사실을 소개하기도 한다. 한편 (10)에서는 산이 넓게 펼쳐진 산악 지형에 그 옆으로는 바다를 끼고 있는 지리적 특성도 소개하는데 이는 변산이 해악(海嶽)이라는 중요한 특성을 간략하지만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이상의 부분들은 변산이 자연이 풍요한 곳 즉 ‘풍요의 장소’임을 알려준다. 이규보가 이때 지은 시 중의 “변산은 자고로 천부(天府)라 일컫는데”¹³⁾라는 구절도 변산의 이러한 속성을 잘 보여준다.

첨언하면 변산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 중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허생전」(許生傳)일 터이다.¹⁴⁾ 그런데 「허생전」

13) “邊山自古稱天府.”(李奎報, 「十二月日, 因斫木初指扶寧郡邊山, 馬上作」, 『東國李相國集』 全集 卷9, 386쪽)

에서 변산은 군도가 차지해 버린 불온한 장소처럼 그려지고 있다. 18세기 초반에 노비 출신의 유민(流民)들이 변산에 모여들어 도적이 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¹⁵⁾ 여기서 ‘그렇다면 왜 하필 유민들이 변산으로 모여든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 답은 이규보가 언급한 변산의 자연지리적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일단 산이 넓게 펼쳐져 있어 숨어 살기에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산과 바다가 내어 주는 자원을 누릴 수 있는 풍요의 장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무진장의 자연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중 두 번째 점을 고려하면 변산은 불온한 장소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에 치인 사람들을 품어주는 ‘치유와 생명의 장소’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9), (10), (11)은 변산의 자연지리적 속성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변산의 인문지리적 속성을 이해하는 단서까지 제공한다.

인문지리의 경우 불교 관련 정보들이 단연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암의 창건 유래, 해당 사암에 거주한 승려와 그들의 구도 활동, 사암과 관련된 중요 사항과 고적 등 불교 관련 정보들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예컨대 (21)은 이규보가 바닷가 인근의 고을을 둘러보던 중 지금의 고창 선운사에서 하룻밤 묵고 그 과정에서 인근의 마에미륵상 및 도술사 즉 도술암을 방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마에미륵상은 보물 1200호로 지정된 마에여래좌상(磨崖如來坐像)을 가리키고, 도술사는 미륵상에서 가까운 바위 위에 있다는 언급을 고려할 때 상도술암(上兜率庵)이라 불렀던 지금의 내원궁(內院宮)을 가리키는 듯하다.¹⁶⁾

한편 소래사(蘇來寺)가 등장하는 (12)도 주목할 만하다. 소래사는 주지하듯이 지금의 부안 변산의 내소사(來蘇寺)이다. 소래사는 원래 대소래사(大蘇來

14) 이 단락의 논의는 유정열, 『풍요의 변산(邊山)과 그 형상화: 소승굴(蘇昇窟)의 <유봉래산 일기>(遊蓬萊山日記) 고찰』, 『국어문학』 79, 국어문학회, 2022, 144쪽에 기반한 것이다.

15) 조선 후기 변산의 노비도적들에 대해서는 정석중, 『조선후기 이상향 추구 경향과 삼봉도』,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 한길사, 1994, 68-75쪽 참조.

16) 이규보가 방문한 도술사[도술암]가 지금의 내원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김창현, 앞의 논문, 151쪽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규보는 해당 부분에서 도술사[도술암]에 “준엄하게 빛나”는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고 했다. 마에불을 제외하고 도술사에서 불상으로 유명한 것은 현재 내원궁에 안치되어 있는 보물 280호 금동지장보살좌상(金銅地藏菩薩坐像)이다. 이규보가 방문한 사암이 내원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가 언급한 불상이 금동지장보살좌상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금동지장보살좌상은 14세기 중엽을 전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규보가 본 것은 그 이전에 만들어진 다른 불상으로 추정된다. 금동지장보살좌상이 만들어진 시기는 진정환, 『高敞·扶安地域 地藏菩薩像의 編年과 造成背景』, 『동아시아고대학』 36,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26쪽 참조.

寺)와 소소래사(小蘇來寺) 두 개가 존재했는데 지금의 내소사는 이 중 소소래사를 이른다. 대소래사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화재로 소실되었다.¹⁷⁾ 이규보가 두 소래사를 모두 방문한 것인지 아니면 한 곳만 방문한 것인지는 미상이다.

내소사의 원래 이름이 소래사라는 사실은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바 (12)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당시 소래사에 자현 거사(資玄居士) 즉 이자현(李資玄, 1061-1125)의 시가 걸려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자현은 고려 시대의 은자(隱者)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자현은 춘천 청평산(淸平山)에 은거하기 전에 소래사를 방문하고 시를 남겼음 직하다. 다만 현재 이자현의 원시는 전하지 않는 듯하고 이규보의 차운시(次韻詩)는 확인할 수 있다. 이규보는 2수의 차운시를 남겼는데 그중 두 번째 시의 “어느 때나 벼슬 내던지고 / 이곳에 와 띠집 짓고 살아볼까”¹⁸⁾와 같은 구절을 보면, 이자현의 원시 또한 소래사 같은 곳에 은거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지 않았을까 한다. 참고로 소래사에 대한 시로는 역시 고려 시대 문인인 정지상(鄭知常, ?-1135)의 「제변산소래사」(題邊山蘇來寺)가 가장 유명하다.¹⁹⁾ 이자현의 시가 수록되지 않은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12)는 이자현의 행적을 보완해 주는 동시에 소래사가 고려 시대 때 시인 묵객(詩人墨客)의 자취가 끊이지 않던 곳임을 알려 준다.

아울러 경북사[비래방장 포함], 원효방, 불사의방장 등과 같이 지금은 자취만 남은 사암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들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 중 (13), (15), (16)에 나오는 원효방과 불사의방장은 모두 부안 변산에 있던 곳들이다. 두 사암은 해당 부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원효과 진표 같은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고승들이 수행한 곳이다. 이렇듯 해당 부분들은 일단 변산이 삼국시대 이래로 불교 수행처로서 각광받아온 사실을 알려준다.

한편 그 연장선상에서 (16)에서 불사의방장이 위치한 변산을 ‘현계산’(賢戒山)으로 소개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변산은 봉래산(蓬萊山), 능가산(楞伽

17) 소래사의 변천에 대해서는 부안군, 『부안군지』 4, 2015, 142-143쪽 참조.

18) “何當解墨綬，聊此結茅深。”(李奎報, 「次板上資玄居士韻」, 『東國李相國集』全集 卷9, 390쪽) 이 시는 『동국이상국집』에 「8월 20일에 능가산 원효방에서 제하다」(八月二十日, 題楞伽山元曉房)라는 시 다음에 수록되어 있어 원효방에서 지은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는바 이 때문인지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원효방 관련 시로 수록해 놓았다. 그러나 이 시는 「남행월일기」의 내용에 의거해 소래사에서 지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참고로 본고에서 언급하는 『동국여지승람』은 그 최종판이라 할 수 있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가리킨다.

19) 정지상의 이 시는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 내소사 봉래루(蓬萊樓)에도 시판(詩板)으로 만들어져 걸려 있다.

山) 등 여러 이칭을 지니고 있다. 이 중 능가산이 불교적 색채를 띠고 있거나와 현계산 또한 불교와의 관련 속에서 만들어진 이름으로 보인다. 이 이름은 ‘현인(賢人)이 계(戒)를 받다’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한데 이는 진표가 목숨을 건 수행 끝에 미륵보살과 지장보살로부터 계를 받았다는 해당 대목의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현계산은 진표가 불사의방장에서 수행했던 사실이 반영된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²⁰⁾

다만 다른 문헌에서는 이 이름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현계산이라는 이름은 제한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고 해도 (16)는 변산의 과거 또 다른 이름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김계[벽골군] 출신의 진표가 수행한 곳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명명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추정하게 해준다.

인문지리 정보 중 불교에 대한 것 외에 주목할 만한 것은 (8)에 나오는 ‘지석’(支石) 즉 고인돌에 대한 것이다. 이 고인돌은 지금의 익산시 금마면 혹은 그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에는 현재 고창 지역에 고인돌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익산 지역의 고인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이 때문에 이규보의 기록에 혹시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익산 지역에는 최소한 근대까지는 고인돌이 존재했다.²¹⁾ 그 이전인 18세기에 편찬된 『금마지』(金馬志)에서도 “지석: 고을 서쪽 15리 지석면 임내리 서쪽에 있다. 돌을 쌓고서 위에 큰 돌을 얹어 두었다. 옛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양을 취했는지 알지 못하겠다”²²⁾라고 하여 고인돌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더욱이 지석이 있던 ‘지석면’이라는 지명은 ‘지석’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 한다.²³⁾

20) 선행연구에서도 현계산이라는 이름 유래가 진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현계산은 진표가 미륵의 계율을 중시한 점에서 유래한 듯하다’라고 한 것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해석은 본고와 다르다(김창현, 앞의 논문, 157쪽).

21)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서는 “전라북도 익산 지역에는 근대까지 고인돌이 남아있던 것으로 전해지나, 현재는 단 1기의 고인돌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며, 도리이 류조[鳥居龍藏]라는 일본 학자가 1915년 익산 황등면에서 찍은 고인돌 사진 하나를 올려놓았다. www.grandculture.net (검색일: 2023.09.18.)

22) “支石, 在郡西十五里支石面林內里西偏, 累石而上覆大石, 未知古人何所取象也.”(이의강 외 옮김, 『金馬志』, 흐름, 2019, 242쪽) 번역은 같은 책, 65쪽의 것을 가져왔다.

23) “面名以此云也.”(같은 책, 같은 쪽)



그림 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益山郡地圖>(奎 10466) 중 지식면 부분

익산 지역의 고인들은 근대 이후 개발 과정 중 보존되지 못하고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한다. 「남행월일기」의 해당 기록은 익산 지역에 고인들이 존재했던 사실을 증언해 주는 이른 시기의 것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이처럼 「남행월일기」는 이규보가 방문한 여러 지역들의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치 있는 정보들로 채워져 있다.

2) 지리지에의 수용

이규보는 「남행월일기」의 서두와 말미에서 “가령 내가 늙어서 다리에 힘이 없고 허리가 굽어서 거처하는 곳이 방안에 불과하며 보는 것이 방석 사이에 불과하게 될 때, 내가 손수 모은 것을 가져다가 옛날 젊은 날에 분주히 뛰어다니며 유상(遊賞)하던 자취를 보면, 지난 일이 또렷이 바로 어제일 같아서 울적한 마음을 풀 수가 있겠기 때문이다. (…) 우선 이것을 간직하여 뒤에 동서남북을 모조리 노닐며 온통 기록할 때를 기다렸다가 합하여 1통(通)을 만들어서 늘그막에 소일할 자료로 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²⁴⁾라고 밝혔다. 즉 노년에 와유(臥遊)할 자료로 삼기 위해 작품을 지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행월일기」가 이규보 개인의 와유 자료 역할만 한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정보들은 조선 시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지리지에 수용되었다.

24) “假得老以至脚衰腰偻，所處不過房櫳之內，所見不出衽席之間，則取吾手集，觀昔少壯時奔馳步驟遊賞之跡，赫赫若前日事，尙足以舒暢其幽鬱也。 (…) 姑藏之，以待東西南北之窮遊極踐，摠記備錄，然後合爲一通，以爲老境忘憂之資，不亦可乎?”(李奎報, 「南行月日記」, 『東國李相國集』全集 卷23, 529·532쪽)

『남행월일기』 수록 정보들의 수용은 『동국여지승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동국여지승람』 이전에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와 『고려사』(高麗史) 지리지 같은 지리지가 편찬되긴 했으나 이 지리지들에서 『남행월일기』를 수용한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동국여지승람』의 편찬에는 『동문선』(東文選) 수록 시문을 비롯한 전대의 자료들이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²⁵⁾ 『남행월일기』는 이규보의 문집은 물론 『동문선』에도 수록된 데다 다양하고도 가치 있는 지리 정보들을 꽤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일단 그 수용 실태를 정리한 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⁶⁾

표 3. 지역별 수용

지역	수용 정보
전주부	(2), (3), (4)
금산군	(18)
부안현	(9), (10)
고산현	(7)
진안현	(5), (6)

표를 통해 보듯이 5개 지역의 9개 조목이 수용되었다. 다양한 지역의 여러 정보들이 고루 수용된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은 주지하듯이 오랜 시간을 들여 국가 주도로 편찬된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전국 단위 지리지이다. 이러한 지리지에 상당량이 수용된 사실을 통해 『남행월일기』 정보들의 가치가 최소한 조선 초기부터 인정받기 시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의 5개 지역은 조선 시대에 모두 전라도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부분들은 전라도 조에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남행월일기』가 전라도 조를 편찬하는 데 있어 중요 자료 중 하나로 활용된 사실 또한 알 수 있다.²⁷⁾ 『남행월일기』가 긴요하게 활용된 사실은 수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

25) 『동국여지승람』 편찬 과정에서 활용된 자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서인원, 『朝鮮初期地理志 研究: 『東國輿地勝覽』을 중심으로』, 해안, 2002, 157-158쪽 참조.

26) 남현희, 앞의 논문, 38-39쪽에서도 『남행월일기』가 『동국여지승람』의 편찬에 중요 자료로 활용된 사실을 언급하고, 부록으로 작품의 역주를 제시하며 수용된 부분에 각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힌 바 있다.

27) 이러한 점에서 참고 사실을 밝히지 않았지만 부안 부분의 망해대 정보 또한 『남행월일기』를 바탕으로 제시된 것일 수 있다. 다만 『동국여지승람』은 망해대를 누정(樓亭)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남행월일기』의 ‘고을 수령이 산꼭대기에 술자리를 마련하고 그곳을 망해대라 소개했다’라는 내용을 보면 망해대는 누정이 아니라 ‘산의 높은 곳에 있는 넓고 평평한 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욱 분명해 진다.

표 4.28) 지역별 수용의 실제

수용 부분	수용의 실제
「全州府」〈風俗〉	民不樵朴. 李奎報記: “人物繁浩, 屋相櫛比, 有古國之風, 故其民不樵朴, 皆若衣冠士人, 進止可觀.”
「鎭山郡」〈形勝〉	山極高. 李奎報記: “ <u>山極高</u> , 入之漸幽奧, 如蹈異邦別境.”
「高山縣」〈形勝〉	危峯絕巖, 壁立萬仞. 李奎報記: “ <u>危峯絕巖</u> , 壁立萬仞, 路極窄, 下馬而後行.”
「鎭安縣」〈風俗〉	其民質野. 李奎報記: “馬靈鎭安, 山谷間古邑也. 其民質野, 面如獼猴, 盃盤飲食腥膻, 有蠻貊風, 有所訶詰, 則狀若駭鹿然, 將奔逐也.”

『동국여지승람』의 「남행월일기」 수용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특정 정보를 제시하고 일종의 증빙 자료 내지 참고 자료로서 「남행월일기」의 관련 부분을 인용한 것이 그 첫 번째이다. 전주의 사암 중 경북사를 소개하며 비래방장과 보덕대사를 언급한 뒤 비래방장의 유래 설명은 「남행월일기」의 관련 부분을 인용함으로써 같음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위 부분들의 경우 정보를 제시하고 이어서 「남행월일기」의 관련 부분을 인용한 것 때문에 언뜻 보면 첫 번째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정보를 유심히 보면 그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民不樵朴”, “山極高” 등의 정보는, 뒤에 인용한 「남행월일기」의 구절 중 밑줄 친 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행월일기」는 해당 정보에 대한 증빙 자료 내지 참고 자료로서만이 아니라 해당 정보의 원천으로서도 수용되었는데, 이것이 수용의 두 번째 방향이다. 특히 이 두 번째 방향은 「남행월일기」 수록 정보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례로서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위의 4개 지역에 대한 정보들은 이후 해당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지리지들에 계속 수록되며 기본 지식으로 굳어지게 된다.

이후로 「남행월일기」는 관찬·사찬을 막론하고 지리지 편찬의 자료로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 일단 『동국여지승람』처럼 전국 단위 지리지의 전라도 조를 편찬하는 데 활용되었다. 예컨대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의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여지도서』(輿地圖書, 18세기 홍문관弘文館 편찬) 등에서 수용 사실이 확인된다.²⁸⁾ 뿐만 아니라 전라도만 대상으로 삼은 지리지 및 전라도의 특정 지역만 대상으로 삼은 지리지 같은 지방 단위 지리지의 편찬에도 활용되

28) 표 안의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에서 가져왔다.

29) 『동국여지지』와 『여지도서』의 수용 실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었다. 예컨대 『호남읍지』(湖南邑誌, 19세기 편찬) 및 『전주부읍지』(全州府邑誌, 18세기 편찬 추정), 『부안지』(扶安志, 19세기 간행), 『고산읍지』(高山邑誌, 고종高宗 연간 편찬)와 같은 <표-3> 속 지역들에 대한 개별 지리지 등에서 수용 사실이 확인된다.³⁰⁾

수용 방향은 『동국여지승람』과 동일하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 졌다. 다만 「남행월일기」를 참고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두 번째 방식을 통해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가 간혹 보이기도 한다.³¹⁾ 수용 범위 또한 대체로 『동국여지승람』과 동일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때문에 이들 지리지의 「남행월일기」 수용은 직접 수용이 아닌 『동국여지승람』을 매개로 한 간접 수용일 가능성도 있다.

물론 『동국여지승람』 이후 편찬된 지리지 중에도 「남행월일기」를 직접 수용한 사례가 있다. 『대동지지』(大東地志)가 대표적인 예이다. 다음은 전라도 「부안」 <산수> ‘변산’의 일부이다.

서쪽으로 군산과 위도를 마주보고 있으며 순풍을 만나 곧장 배타고 가면 중국을 가기가 또한 멀지 않다. 산중에는 밤이 많고 또 대나

표 5. 『동국여지』의 지역별 수용

지역	수용 정보
전주부	(2), (3)
금산군	(18)
부안현	(9), (10)
고산현	(7)
진안현	(5), (6)

표 6. 『여지도서』의 지역별 수용

지역	수용 정보
완산[전주]	(2)
진안현	(6)
고산현	(7)

30) 이상 4개 지리지의 수용 실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지리지별 수용

지리지	수용 정보
『호남읍지』	(2), (6), (7), (9), (10)
『전주부읍지』	(2)
『부안지』	(9), (10)
『고산읍지』	(7)

한편 4개 지리지의 편찬·간행 시기는 소장 기관 홈페이지의 해제 등을 참고해 제시했다.

31) 예컨대 『여지도서』 전라도 「고산현」 <형승>의 전문은 “危峯絶嶺，壁立萬仞”인데 이는 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나 『동국여지승람』과 마찬가지로 <표 1> 중 (7)에서 가져온 것이다.

무가 삼대와 같다.

西對群山、蝟島，得便風而直帆，則其去中國亦不遠。山中多栗，
又箭竹如麻。³²⁾

출처를 밝히지 않았지만 위 구절이 <표 1> 중 (10)의 후반부와 (11)을 혼합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바로 알 수 있다. 이들은 『동국여지승람』에 수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의 수용은 편찬자인 김정호(金正浩, 1804-1866 추정)가 「남행월일기」에서 직접 취한 결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보듯이 「남행월일기」 수록 상당한 정보들이 직접 또는 간접의 경로로 조선 시대 거의 전시기 동안 지리지에 수용된 것이다. 단일 작품이 이처럼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지리지에 수용된 사례는 흔치 않을 터이다. 이는 「남행월일기」가 애초부터 지리지적 성격을 지닌 작품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³³⁾

지금까지 「남행월일기」의 지리지적 성격을 고찰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에 의거해 지리지적 관점에서 「남행월일기」의 위상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남행월일기」 수록 정보들은 거의 전라북도에 대한 것이다. 「남행월일기」 이전에 전라북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저술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 수록 정보들은, “전주는 본래 백제 완산(完山)이었는데 진흥왕(眞興王) 16년(555)에 주(州)로 삼았고, 26년(565)에 주를 폐지했다. 신문왕(神文王) 5년(685)에 다시 완산주(完山州)를 설치하였다. 경덕왕(景德王) 16년(757)에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도 그대로 쓴다. 영현(領縣)이 셋이었다. (...) 부령현(扶寧縣)은 본래 백제 개화현(皆火縣)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도 그대로 쓴다”³⁴⁾라는 전주와 부령현[부안] 부분 등에서 볼 듯 있듯이, 대체로 연혁에 대

32) 『大東地志』 卷11 全羅道, 「扶安」, <山水>.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에서 가져왔다.

33) 한편 지리지에 수용되지는 않되 「남행월일기」 수록 정보와 동일한 것이 지리지에 수록된 경우가 발견되기도 한다. <표 1> 중 (21)에 나오는 마에미륵상이 『무장현읍지』(茂長縣邑誌, 장서각 소장)와 같은 고창의 지리지들에 보이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8)에 나오는 지석이 앞서 언급한 『금마지』 속의 지석이라면 이 또한 예가 될 수 있다.

34) “全州本百濟完山。眞興王十六年爲州。二十六年州廢，神文王五年復置完山州。景德王十六年改名。今因之。領縣三。(…)扶寧縣，本百濟皆火縣，景德王改名。今因之。”(『三國史記』 卷第36, 雜誌 第5, 地理3) 원문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것을, 번역은 정구복 외 옮김, 『역주 삼국사기』 2,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637-638 쪽의 것을 가져왔다.

한 것들에 국한되어 있다. 더욱이 이 저술은 전국 단위 지리지로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남행월일기』가 전라북도에 대한 지리 정보들을 집중적으로 수록한 가장 이른 시기의 저술일 가능성이 높다. 『남행월일기』는, 그간 전라북도를 소재로 한 가장 이른 시기의 기행문학 작품으로 주목받기도 했거니와,³⁵⁾ 이제 전북지(全北誌)의 성격을 지닌 가장 이른 시기의 저술로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마치는 글

지금까지 이규보의 『남행월일기』를 지리지적 성격을 지닌 작품으로 보고 그 면모를 고찰해 보았다. 이제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남행월일기』는 기본적으로 산수유기에 속하는 작품이다. 다만 산수미의 형상화보다는 유람자들의 정보를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는 점에서 ‘지리지적 성격을 지닌 산수유기’로 볼 수 있음을 밝혔다. 산수유기가 지리지적 성격을 지니는 것은 장르 경향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 『남행월일기』는 한국 산수유기의 역사에서 이 경향을 선도한 작품이다. 한편 산수유기와 지리지의 상위 장르인 ‘기’와 ‘지’는 ‘사실 기록’이라는 기본 성격을 공유하며 이로 인해 서로 넘나들며 혼용되기도 한바, 이를 통해 보면 『남행월일기』가 지리지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남행월일기』의 지리지적 성격은 먼저 그 수록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남행월일기』에는 이규보가 유람한 지역들의 지세, 식생, 풍속, 종교 등과 같은 정보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이 정보들은 해당 지역들의 자연 지리와 인문지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가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록 정보들이 후대의 지리지에 수용된 실태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도 지리지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행월일기』 수록 정보들은 조선 초기에 『동국여지승람』에 수용된 이래로 조선 시대 거의 전시기 동안 전국 단위의 것은 물론 지역 단위 것에 이르기까지 지리지에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 이는 『남행월일기』가 애초에 지리지적 성격을 지닌 작품이었기에 가능한 일로

35) 김미선,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현황과 활용」, 『全北學研究』 1,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019, 151쪽.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 의거해 「남행월일기」의 위상을 지리지적 측면에서도 정립해 볼 수 있었다. 「남행월일기」 수록 정보들은 거의 전라북도에 대한 것이며, 그 이전의 저술 중 전라북도에 대한 정보들을 집중적으로 수록한 것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남행월일기」는 전북지의 성격을 지닌 가장 이른 시기의 저술로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논문접수일: 2023. 11. 08. / 심사개시일: 2023. 11. 29. / 게재확정일: 2023. 12. 15.

참고문헌

1. 자료

- 南孝溫, 『秋江集』, 한국문집총간 16.
-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한국문집총간 1.
- 『高山邑誌』, 규장각 소장(청구기호: 想白古 915.14-G69).
- 『大東地志』,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東國輿地志』,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茂長縣邑誌』, 장서각 소장(청구기호: K2-4237).
- 『扶安志』,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청구기호: 일산古 2744-4).
- 『三國史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新增東國輿地勝覽』,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全州府邑誌』, 규장각 소장(청구기호: 奎 17397).
- 『輿地圖書』 下, 1973, 국사편찬위원회 영인.
- 『湖南邑誌』, 규장각 소장(청구기호: 奎 12181).
- <益山郡地圖>, 규장각 소장(청구기호: 奎 10466).
-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1981, 『국역 동국이상국집』.
- 이의강 외 옮김, 2019, 『金馬志』, 흐름.
- 정구복 외 옮김, 2012, 『역주 삼국사기』 2,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www.grandculture.net
- 徐師曾, 1982, 『文體明辨序說』,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 논저

- 강혜규, 2014, 「농재 흥백창의 『동유기실』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경일남, 1991, 「<南行月日記>의 隨筆의 特性」, 『한국언어문학』 29권, 217-231쪽.
- 김미선, 2019,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현황과 활용」, 『全北學研究』 1권, 141-175쪽.
- 김용선, 2013, 『이규보 연보』, 일조각.
- 김창현, 2013, 「문집의 遊歷 기록을 통해 본 고려 후기 지역사회의 양상: 이규보

- 의 전주권역 遊歷 기록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52권, 107-164쪽.
- 남현희, 1999, 「고려후기 산수유기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박희병, 2008,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 부안군, 2015, 『부안군지』 4.
- 서인원, 2002, 『朝鮮初期 地理志 研究: 『東國輿地勝覽』을 중심으로』, 해안.
- 원주용, 1999, 「이규보의 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유정열, 2022a, 「풍요의 변산(邊山)과 그 형상화: 소승규(蘇昇奎)의 <유봉래산일기>(遊蓬萊山日記) 고찰」, 『국어문학』 79권, 143-169쪽.
- _____, 2022b, 「묘향산(妙香山) 산지(山誌)의 특성과 의의」, 『한국학논집』 89권, 37-67쪽.
- 정석중, 1994,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 한길사.
- 조범중, 2010, 「이규보의 <南行月日記>에 나타난 고대사 사료 검토: 普德, 元曉, 眞表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사인물연구』 13권, 267-305쪽.
- 진정환, 2014, 「高敞·扶安地域 地藏菩薩像의 編年과 造成背景」, 『동아시아고대학』 36, 9-44쪽.
- 최승범, 1980, 『韓國隨筆文學研究』, 정음사.

<Abstract>

A Study of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Namhaengwolilgi』 by Lee, Kyu-bo

Yu, Jeong-yeol*

This paper considered Lee, Gyu-bo's 『Namhaengwolilgi』 as a work with a geographical character and examined its aspects. 『Namhaengwolilgi』 is a work that belongs to the essays on landscapes. However, it focuses on presenting information on tourist attractions rather than embodying the natural beauties. It can be seen as an 'essay on landscapes with geographical characters.' The fact that essays on landscapes have a geographical character can be said to be one of the trends of the genre, and 『Namhaengwolilgi』 is a work that led this trend in the history of essays on landscapes of Korea. Meanwhile, 'Gi' and 'Ji' which are higher genres of essays on landscapes and geography, were used interchangeably because they shared the basic characteristic of 'record of truth'. From this, we can see that 『Namhaengwolilgi』 can have geographical characters.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Namhaengwolilgi』 could be confirmed by first examining its contents. 『Namhaengwolilgi』 contains a wealth of information such as topography, vegetation, customs, religion, etc. of the regions where Lee, Kyu-bo traveled. This information is valuable and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natural and human geography of the region.

Next, the geographical nature of 『Namhaengwolilgi』 could be confirmed by examining the pattern in which the information included was accepted into posterity geographical journals. Since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Namhaengwolilgi』 was accepted in 『Donggukyeojiseungram』 in the early Joseon Dynasty, it was widely accepted in geography from the national level to the regional level throughout almost the entire period of Joseon Dynasty. This can be seen as possible because 『Namhaengwolilgi』 was originally a work with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above contents, the status of 『Namhaengwolilgi』 could be established

* Senior research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in terms of geographical aspects.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Namhaengwolilgi」 is mostly about Jeollabukdo, and it is difficult to find previous writings that contain information about Jeollabukdo intensively. For this reason, 「Namhaengwolilgi」 can be evaluated as the earliest period of Jeonbok geographical journal.

Key Words : 「Namhaengwolilgi」, Lee, Kyu-bo, Geographical information, Essays on landscapes